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참가자 모집

부안군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주민단체(모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공동체모임 활성화, 거점시설의 활용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부안군민 5명 이상 단체(모임)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주민공모사업에서는 기획공모(선정분야) 4개팀, 일반공모 5개팀 등 총 9개팀을 모집하며 기획공모는 팀당 최대 1000만원, 일반공모는 팀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획공모는 청년 한달살기, 소셜다이닝, 마을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안 공동체모임을 분야와 주제 상관없이 모집한다. /부안=김성진 기자

고창군, 버섯 녹차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전북 고창군이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으로 특용작물 생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병난방기, 버섯 종균배양시설, 배지차리기, 살균기, 건조기, 종균기, 분쇄기 등의 설치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 농가는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녹차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버섯, 녹차는 고창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전라차 물론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고품질 고창 특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힐링 여행 1번지 더욱 각광”

정읍 내장산문화광장, 정읍천·부전천 합류지점에 수상레저체험존 조성

정읍시가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호 인근 문화광장을 힐링 여행의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내장산 트라이앵글 구축사업의 핵심 거점인 내장산문화광장 주변 정읍천과 부전천이 합류되는 지점 6,500㎡에 수상레저체험존을 조성했다. 총사업비 7억원이 투입된 수상레저 체험존은 범퍼 보트 총 20대와 계류장(52m×55m), 화장실, 창고, 매표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내장산 문화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수상 레저 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5일부터 28일까지 범퍼 보트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물 위의 범퍼카로 불리는 범퍼 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시설이다. 범퍼 보트는 만 15세부터(만 14세 이

하는 부모님 동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이용요금은 무료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타임으로 진행된다. 타임 당 범퍼 보트는 10대씩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 개장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정식 개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총 20대의 범퍼 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개장 후 이용요금은 2인용 1대당 15분에 7,000원, 30분에 10,000원이며, 정읍시민에게는 2,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면역력 증진에 좋은 고창 쌍화차가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건강한 자연의 맛’ 고창 쌍화차

고창군, 더운 여름은 협동조합 쌍화차 미국 첫 수출

면역력 증진에 좋은 고창 쌍화차가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고창군은 5일 쌍화차를 생산하는 더운협동조합(대표 황의민)이 지난 1일 미국으로 첫 수출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1A로 수출되는 이번 물량은 오리차날 쌍화, 약도라지 쌍화차 2종으로 수출금액은 2000만 원이다.

고창 쌍화차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생강, 대추, 황기 등 8종의 한약재를 엄선해 제조되며 일반적인 쌍화차의 쓴맛을 깔끔하면서도 풍부한 맛으로 조절해 젊은층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파우치 형태로 제작돼 휴대와 음용이 간편하다.

더운협동조합 황의민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을 교두보 삼아 몽골, 일본 등 고창 쌍화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스 쌍화차, 짜먹는 도라지액처럼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전 세계적으로 K-푸드 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음료인 고창 쌍화차가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창 농특산품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지원, 바이어 매칭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내 유일 섬 속 힐링공간 위도 치유의 숲 준공

부안군, 산림치유 편의 등 조성

부안군은 국내 유일 섬 속 힐링공간인 위도 치유의 숲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위도 치유의 숲은 총 사업면적 41.9ha 중 시설면적 7340㎡에 산림치유, 편익 위생시설로서 2층 건물인 치유센터 1동과 숲속의 집 4동, 무장애 데크길 420m, 치유숲길 2.4km 등으로 조성됐다.

주요 건물인 치유센터 1층에는 사무실·당직실·프로그램진행실, 2층에는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될 치유실이 3개와 건강 측정실·휴게공간·화장실 등을 갖췄다.

치유장비로는 체성분분석기, 초음파신장계, 자동전자혈압계, HRV(스트레스측정기), 수압마사지기, 펌백건식족욕기, 안마의자 등이 있다.



부안군은 국내 유일 섬 속 힐링공간인 위도 치유의 숲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센터 시설에서 전반적 신체 상황 파악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검사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유숲길에는 다양한 산림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성공 위한 로컬 청년 지원사업 ‘본격화’

정읍시와 SK네슬리스가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조인정읍(Joy'n 정읍) 로컬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인정읍은 정읍시와 SK네슬리스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지역 재발견 활성화 프로젝트다. 청년 창업인들의 가게 운영 경험과 노하우 향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과 관련한 교육·컨설팅과 공유가게 입점 운영, 청년창업 초기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5일 청년지원센터에서 ‘조인정읍 로컬 청년창업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에 앞서 시는 지난 두 달간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예비) 창업가 14팀 22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은 공통교육인 로컬 특화 창업 전문 프로그램과 개별코칭인 1:1 맞춤형 코칭으로 이뤄지며, 6월까지 총 10주간 매주 화요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교육생에게 전달 코치진을 배정해 사업 아이템 발굴은 물론 사업 고도화와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 맞춤형 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관은 SK네슬리스의 파트너사인 창업 전문 교육기관 언더독스가 맡았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은 이달 완공 예정인 샘고을시장 인근(구 시가지출소 앞에 자리한 조인정읍 공유 오피스(공유가게 3호점)를 6개월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JB 전북은행, 정읍시에 법인카드 적립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5일 정읍시청에 방문해 정읍시 발전 적립금금 3,807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적립금금은 정읍시청과 전북은행 간의 업무 제휴로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이익액의 1%를 정읍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JB 전북은행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에 약 19,866만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적립금은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편성해왔다.

유진섭 시장은 “전달받은 기금은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

김경진 부행장은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

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은 정읍시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읍시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하고, JB금융그룹 통합 연수원을 정읍에 설립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